

금빛 선율에 내려앉는 제주바다, 태양, 바람

서귀포관악단 70회 정기공연 이승후 창작곡 '...영등할망' 김한돌 협연 생상스 협주곡 교향곡 시리즈 필립 스파크

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제주 음악인이 만든 작품, 제주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서귀포관악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연주곡은 이승후의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 생상스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필립 스파크의 '교향곡 1번 지구, 물, 태양, 바람'이다.



생상스 협주곡을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김한돌.

제주색이 밴 창작곡을 금빛 선율로 꾸준히 풀어내고 있는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5월에 맞이하는 정기연주회 역시 제주 설화와 바람을 품은 곡으로 무대의 막을 연다. 코로나19 시대 '첼린지 콘서트'로 기획한 '일상'으로 주제 일흔 번째 정기연주회다. 이달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이동호 상임지휘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은 2020년 제주국립관악제 관악합주 창작곡으로 발표됐다. 서귀포관악단 이승후 상임 단원이 작곡한 곡으로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통적 표현에 현대적 색채를 더했다. 타악기로 제주 바다와 바람을 묘사하는 등 영등할망의 서사적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냈는지 주목해 보자. 생상스의 피아노협주곡은 제주대

에 출강하는 제주 출신 신에 피아니스트 김한돌이 협연한다. 이 작품은 생상스가 남긴 다섯 개의 협주곡 중

최고의 곡으로 평가 받는다. 필립 스파크의 교향곡은 서귀포관악단이 펼치는 '교향곡 시리즈' 아홉 번째 작품이다. 총 4악장에 걸쳐 지구, 물, 태양, 바람의 서로 다른 특성을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 생동감 있게 담아내며 자연의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과 장엄함이 공존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대면 공연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예약자 150명만 입장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이달 4일부터 서귀포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현장에 찾아오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선 6월 7일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예술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공개한다. 전선희기자

제주살이 50대, 여성, 예술가의 정체성

김미지 개인전 돌담갤러리 핫멜트 이용한 '블랙 정원'



김미지의 '021MA0301-블랙 정원'(블랙 핫멜트, 와이어, 2021).

50대, 여성, 예술가. 우리 사회에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름들이다. '50대 여성 예술가'인 김미지 작가는 이 시기를 "에너지가 다 소진해 버린"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힘을 모아 '블랙 정원'으로 이름 붙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 현재 답소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제주에 머물고 있는 김미지 작가가 이달 3일부터 그 같은 작업 여정을 모아 제주시 중앙로 돌담갤러리에서 '블랙 정원' 주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버리고 녹여 추출해낸 실 모양의 검은 겹질들로 빛이던 입체 작품과 정원을 표현한 설치 작품 35점으로 꾸민 전시다.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이충섬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열렸던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열렸던 '미자의 뜰' 등 중년 여성의 독백 같은 이야기를 작업에 담아온 그는 이번이 그 연장선에 있는 스토리를 엮었다. '블랙 정원'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다시 새로운 작업에 뛰어들 동력을 얻으려는 몸부림이 있다.

김 작가가 정원을 가꾼 도구는 고체에 열을 가해 녹여서 쏘는 핫멜트

글루건이다. 그는 좁은 작업장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평소 사용했거나 작업을 위해 수집한 사물들을 블랙 핫멜트로 겹질을 때내 뜨개질하듯 이어 붙였다. 블랙은 고고함, 반짝임, 끝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작가는 작업하는 동안 자신을 울고 웃게 만든 검은 정원을 통해 낯설지만 앞으로 나아가길 용기를 내보려 한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18일까지 계속된다. 돌담갤러리는 하나은행 금융센터지점 지하 1층에 있다. 전선희기자



'창 기타'에서 전시되는 수제 기타.

단 하나의 악기, 수제 기타의 품격

'창 기타' 운영 장기주 대표 전 공정 수작업 12점 제작 이달 15일까지 기타 전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기타의 품격을 담은 전시가 있다. 제주의 수제 기타 제작소 '창 기타'(제주시 한경면 홍수암로 561)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어 가는 기타 전시회다.

'창 기타'는 2011년 제주에 정착

한 장기주 기타 제작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기존 기타 공방 이미지를 탈피해 예술품으로서의 기타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꾸리고 있다.

제주에서 '창 기타'를 운영하던 장기주 대표는 2017년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미국에서 수제 기타 장인을 길러내는 기술대학으로 알려진 미네소타 스테이트 칼리지 사우스이스트(Minnesota State College Southeast) 기타 제작 학과를 마쳤다. 기타 제작 대가로 불리는 제임스 울슨의 가르침 등을 받

았던 그는 미네소타 주에서 열린 수제 기타쇼에 출품해 호평을 들은 경력이 있다.

2019년 제주로 돌아온 장 대표는 이번엔 통기타의 고장에서 익힌 전통 방식의 고급 기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한 수제 기타 12점을 제작했다. 통기타 10대, 클래식 기타 1대, 재즈 기타 1대다.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완성한 기타로 장 대표의 10년 경력을 쏟아 부은 작품들이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타 연주가 가능한 사람은 현장에서 연주 체험도 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여성 서사 발굴

제주 작품 초청 섹션 신설 이달 30일까지 작품 공모 단편 경선도 응모작 접수

제주여성영화제에 제주 지역 작품 초청 섹션이 신설된다. 제주여성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22회 제주여성영화제 섹션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올해 영화제는 '나의 목소리, 곁에'를 표어로 내걸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펼쳐진다. 제주서네페미학교, 단편 경선인 요망진당선작, 제주 지역 작품 초청, 집담회와 포럼, 영화제 관람 후기 공모전 등으로 꾸린다.

첫 제주 지역 작품 초청은 제주지역 여성서사를 발굴, 지원해 영화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주 영화인들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최근 3년 이내

(2019년 1월 이후) 제작한 작품으로 극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 구분 없이 장·단편 모두 출품 가능하다. 다만 연출자(감독)가 제주에 주소지를 둔 자, 연출자(감독)가 제주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이거나 졸업자인 경우, 출품작이 제주에서 50% 이상 로케이션을 한 작품 등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3~30일로 정해졌다.

요망진당선작(단편 경선) 공모도 별이다. 단편 경선은 신진 여성감독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해 왔다. 출품작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완성된 40분 미만 작품으로 여성감독(남성과의 공동연출도 인정)이 만든 극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3~23일이다. 문의 제주여성영화제 사무국 070-4047-9130.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쏘지

시민 배우·공연 단체 모집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 7월과 10월 서귀포문화제야행 참가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시민 배우 100명은 7월 행사 때 신들의 고향 제주와 코로나 백신에서 모티브를 딴 '제주의 100신' 퍼포먼스를 맡는다. 거리공연 예술가, 프리마켓 셀러도 모집 중이다. 시민 배우는 이름과 전화 번호, 거리공연은 공연명과 단체명, 행사 실적을 전자우편(lovejeju2019@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셀러는 구글폼(https://forms.gle/WKmb4 YG 8R6q23nmT6)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 공감 의식개선 역할극

제주YWCA통합상담소가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으로 실시하는 '세대 공감 의식개선 역할극' 참여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역할극은 노인, 성인, 청소년, 유·아동 등 생애주기별로 주제를 달리해 운영된다. 고부 갈등, 성차별, 직장 내 갑을 문화, 성희롱과,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이다. 역할극과 토론으로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완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게 된다. 11월까지 진행 예정으로 회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한다. 문의 748-3040.

예술교육 '밤과 별 이야기'

제주시 에월음 상가리의 제주 문화공간 마루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밤과 별 이야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밤과 별 이야기'는 일상생활 속의 경험과 감정을 예술작품으로 연결해 보는 통합예술 프로그램이다. 박수현 제주에코댄스 대표, 최재원 레아플라멩고 대표, 고혜련 제주극장 사무국장, 이정은 제주극장 사회적협동조합 음악담당이 주 강사로 참여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으로 1기 프로그램은 5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운영된다. 네이버 밴드 '밤과 별 이야기'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본태박물관 5월 이벤트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본태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에 맞춰 무료 입장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어린이날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입장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엔 제주를 찾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결혼한 신혼 부부이거나 예정인 커플을 대상으로 하며 박물관 매표소에서 인증(정점장과 신분증)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92-8108.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10,000원 부터

코팅/무코팅 500매 단면



15,000원 부터

코팅/무코팅 9cm x 5.5cm 1000매



120,000원 부터

A4 4,000매 단면 16절 8,000매 단면

포스터 / 팜플렛 / 카달로그 / 필지 / 서식 / 봉투 / NCR지 / 현수막 등

제주시 정든로3길 52 전화/ 064.702.9990~1 팩스/ 064.726.9992 메일/ msp9991@daum.net